

## 2016 서울연극제 자유참가작 심사평

올해 자유참가작은 총 6편이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을 마법의 공간으로 바꿔 그림자극과 접목시킨 가족 연극 <사랑해 엄마>와 수십 년 전 주막에서 현대의 포장마차로 이어진 공간에 일상의 비애와 역사적 비극을 교차시킨 <왜 그래>,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들의 허무와 공포, 이를 이기려는 의지와 연민을 코믹만담으로 버무린 <흑흑흑 희희희>, 오타쿠라는 현대적 소재 안에서 중심인물의 정체성 자각이라는 주제를 표현한 <마다마다>, 메데이아의 골간을 뽑아 가정이라는 소사회의 폭력과 상실감을 시적인 메타포로 형상화한 <메데이아 콤플렉스>, 2인극으로 그로테스크한 비극적 서사를 구현해낸 <진홍빛 소녀>까지, 다양한 주제와 다채로운 시도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다른 경연제 수상작과 타 페스티벌 참가작, 재공연 등 그 이력도 여러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서사의 비약이 심하거나 약한 서사로 극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작품, 또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웃음 포인트, 인물의 감정선의 당위와 개연성을 획득하지 못한 작품 등이 몇 가지 아쉬운 점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여섯 작품 중 무대 위 일루전과 등장인물의 앙상블이 유려하게 부각된 작품을 작품상으로, 상징과 메타포로 연출가의 고민의 흔적이 많이 표출된 작품을 연출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기상에는 더블캐스팅 또는 연기적 색채가 다양했던 여섯 작품 중, 작품의 본질적 주제와 흐름을 가장 탄탄히 선보인 세 명의 배우에게 수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 제37회 서울연극제 자유참가작을 지켜보면서, 연극제와 기간이 맞으면 단순한 신청과정만으로 자유참가작을 선정하다보니 적절한 기준이 부족하여 작품마다 다소 질적 차이가 보였다는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다음 연극제에서는 현명하게 해소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예술의 입지가 곤고해진 지금, 부단한 노력으로 연극에 열정을 불태우는 모든 참여단체 및 연극인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 윤주상, 박혜선, 위기훈